

【붙임 4】

대표프로그램 개요서 및 시나리오 작성 양식

[프로그램 개요]

무등산 지질따라 풍류나들이 (1박 2일형)



운영장소	무등산생태탐방원,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참가대상	중학생 이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3월~11월, 1박 2일
신청방법	홈페이지 예약, 전화문의 (062-263-1187)

무등산 지질따라 풍류나들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와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의 가사문학권을 탐방하는 생태여행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지질 속에서 풍류를 찾아보고,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과 가사문학권에서 우리나라의 정자문화와 선비의 삶을 찾아볼까요?

무등산생태탐방원의 지질 따라 풍류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자원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무등산 지질따라 풍류나들이!

활동장소	무등산생태탐방원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박 2일
참가대상	중학생 이상 가족 친구 소규모 단체
참가인원	15명/해설사

- 활동목표**
-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지질 탐사를 통해 협동심을 고취
 -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질학적 중요성 인식
 - 무등산생태탐방원의 주변의 농정문화를 이해
- 준비물**
- 현수막, 지질탐사 도구(햅머, 클리노미터, 체, 풍속계, 적외선 온도계등), 필드노트, 구급약품 등
- 유의사항**
- 야외 프로그램 시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야외 프로그램 시 구급약품 소지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일 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프로그램 일정 소개 -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생태탐방원 소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쉬운 지질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의 이해 - 암석의 종류, 무등산 주상절리대 설명 - 너덜과 너덜 속 생물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야 지질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사바위 이야기, 어사바위 탁본뜨기(조별미션) - 루페로 암석 관찰하기, 지질탐사 - 주상절리대(서석대, 입석대, 광석대)와 너덜 - 주상절리 시짓기, 필드노트 작성하기 	2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암석을 활용한 사쇄방향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암석을 활용한 사쇄만들기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문학권(환벽당, 식영정)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벽당, 식영정 탐방 및 시발표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생태탐방원 달빛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초롱들고 떠나는 달빛기행 	4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탐사 시 작성한 필드노트 발표하기 - 어사바위 탁본 조사하기(조별미션) 	30분

2 일 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일정소개 - 안전 시 주의사항 설명 	1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문학권 탐방(소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쇄원 가사문학 해설 - 선비체험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문학권 탐방(독수정 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원림이야기 - 작품(탁본) 발표하기 	6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로 느낀점 발표하기 	15분

시나리오	<p>[1일차]</p> <p>알기 쉬운 지질이야기</p> <p>여러분 무등산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무등산의 보석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보석을 만나기 전에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p> <p>한 동물의 소리를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어떤 동물인지 알겠나요? 이 소리의 동물은 '공룡'입니다. 오늘 만나볼 무등산의 보석이 공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p> <p>무등산의 보석은 주상절리대입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가 있는데요, 서석대와 입석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자연자원 가치가 높은 주상절리대입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응회암으로 되어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암석 키트를 보고 응회암을 루페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이제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를 잘 알겠나요? 밖으로 이동하여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를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p> <p>나는야, 지질학자!</p> <p>무등산국립공원 현장답사에 앞서 안전수칙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팀별로 인원이 다 같이 다니고 각 지점의 포인트를 훼손하진 않습니다. 야외에서 심한 장난을 치면 안되고, 혹시 다쳤을 경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선생님께 즉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드노트를 드리겠습니다. 필드노트를 보고 관찰한 내용과 적고, 팀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p> <p>여기 보이는 바위가 '어사바위'입니다. 옛날 무등산에는 많은 문둥이와 거지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한 스님이 지실마을 이웃에 움막을 짓고 동냥을 하여 이들을 돌보며 살았</p>
------	--

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승유역불 정책으로 불교를 이단시하고 있을 때라 스님이 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포교 활동으로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생들이 이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으나 이를 듣지 않자 스님이 원행을 떠남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그 뒤 쫓겨 난 문둥이와 거지들 가운데는 굶주림과 추위속에 죽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스님은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불쌍하게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어사바위위에 “南無阿彌陀佛”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씨를 음각해 위패를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복을 빌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원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어사바위에는 이렇게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별로 어사바위에 있는 글씨를 탁본을 뜨고, 다 완성된 작품은 저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원효분소 인데요, 여기서부터 덕산너덜까지 가서 지질탐사를 하고, 관찰을 토대로 필드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덕산너덜입니다. 너덜은 주상절리대가 무너져 형성된 것인데요,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대는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가 있습니다. 서석대와 입석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서석대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줄지어 서 있어서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빛이 반사되면 수정처럼 빛을 발하면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병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석대를 무등산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무등산을 서석산이라 부른 것도 실은 서석대의 돌 경치에서 연유한 것이고 5월 하순쯤 이곳에 만개한 연분홍 철쭉꽃은 기암절벽과 어울려서 초여름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룹니다. 노산 이은상은 이 경치를 ‘무등산 기행’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분객 한 많은 사람 쉬어가라 하시오니 나무 서석 여래불 무엄한 채 밟고 잡고 기대어 던진 막대를 다시 들 줄 모릅니다. 그만큼 서석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뿐 아니라 입석대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과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입석대 立石臺

어느제 지으셨다 어이다시 뜯으신고
거룩한 기둥받침 새것처럼 남았세라
터마져 하느님 나라 고개 절로 숙여라 - 육당 최남선

천만년 비바람에 깎이고 떨어지고
늪도룩 젊은 모양이 죽은 듯 살아 있는 모양이
찌르면 끓는 피 한 줄 솟아날 듯 하여라 -노산 이은상

장불재에서 동쪽으로 400m쯤 오르면 정상의 서쪽으로 해발 1,017m 지점에 입석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돌모양은 다른 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등산만의 절경입니다. 이러한 입석대를 보고 육당 최남선 선생님과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서 시를 지었습니다.

팀별로 입석대와 서석대의 느낌을 짧게 두줄에서 세줄정도로 자작시를 만들어 직접 써 볼건데요, 팀끼리 상의하셔서 시를 직접 만드시고, 한지와 붓펜으로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시는 오후에 가사문학관으로 가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드셨나요? 이제 너덜속의 풍혈을 온도계로 재보고 필드노트에 작성한 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덜을 보고 무등산의 주상절리대에 대해 많이 탐사하셨나요? 이제 다시 탐방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질탐사가 단순한 탐사가 아닌 돌 하나도 자연자원의 일부로 보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중함을 다 느꼈을 거라 믿고 이제 탐방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암석을 활용한 사쇄방향제 만들기

오늘 덕산너덜까지 가서 다양한 암석에 대해 관찰해보고, 미션수행을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암석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돌은 운모계 천연암석을 1000℃이상 가열하여 만든 돌입니다.

운모계 암석은 점토질 암석이 지하의 온도·압력을 받아 변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운모계 암석을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드셨나요? 이렇게 암석을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방향제는 집안이나 옷장 등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가사문학관(환벽당, 식영정) 탐방하기

북구 충효동에는 사촌 김윤제가 지은 환벽당이 있습니다. 이 곳이 바로 사촌 김윤제가 지은 환벽당입니다. 환벽당은 창계천(증암천)을 사이에 두고 사촌의 조카인 김성원이 장인되는 석천 임억령에게 지어준 식영정과 불과 250m 거리에 마주 서 있는 정각입니다. 옛날에는 창계천에 홍교를 놓아 서하당 김성원과 서로 내왕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충효교가 새로 만들어져 옛날 무지개다리의 정취는 찾아볼 길은 없습니다. 이곳은 송강 정철이 14세 때 사촌공과 우연히 만나게 된 곳이며, 그의 생애와 운명을 바꾸어 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강은 여기서 10여년과 학업을 닦았고, 이런 인연으로 정소강의 후손 정민하가 사촌의 후손으로부터 환벽당을 인수하여 유지해오다가 지금은 송강의 16세 후손인 정구선이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누정은 풍광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곳에 세워져 휴식과 풍류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교와 모임, 시문 창작의 산실인 곳입니다. 옛 선비들은 누정에서 음풍농월하며 자연과 일체되는 즐거움을 즐기거나 조용히 독서와 사색하고 학문을 교류하는 장이였습니다. 또한 활쏘기를 수련하고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공간이기도 하였죠.

환벽당에서도 옛 선비들이 누정에서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교류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선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나요? 환벽당을 다 탐방하셨으면 이제 김성원이 지은 250m떨어진 식영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식영정입니다. 식영정은 서하당 김성원이 그의 장인이자 스승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1560년(명종 15년)에 서하당과 나란히 지었다고 합니다. 식영정이 자리잡은 산등성 자락에서 남쪽으로는 무등의 준봉을 바라 볼 수 있으며 바로 아래 광주호가 넘실거리려 경관이 더욱 돋보입니다. 이 정자를 지은 김성원은 임석천에게 시와 글을 배웠는데 오, 석천, 서하당, 제봉, 송강 등 네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식영정사선이라 불렀고 또 식영정을 사선정이라 애칭하였습니다. 식영정 입영은 후에 송강의 성산별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식영정은 송강 정철의 유적지인 송강정과 함께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정철은 식영정에 머물면서 한국가사문학의 백미인 <성산별곡>을 저술합니다. 성산별곡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어 학문과 풍류를 즐기던 김성원을 위해 송강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식영정에서 머물다 보면 저절로 멋진 시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무등산국립공원 너덜지대에 가서 서석대와 입석대의 느낌을 조별로 자작시를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식영정에서 선비의 모습으로 오늘 만든 자작시를 팀장이 나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정말 멋진 시한편이 나왔습니다. 이제 식영정을 마무리로 한번 더 둘러보고 탐방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둘러보셨나요? 오늘 환벽당과 식영정 탐방으로 인해서 우리 옛선비들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탐방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무등산생태탐방원 달빛기행

이제 오늘의 일정도 다 끝나가 해도 지고, 밖은 어두워 졌는데, 청사초롱을 들고 무등산생태탐방원 근처인 광주호호수생태공원을 짧게 트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초롱은 조선후기에 왕세손이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혼례식에 사용했던 초롱입니다. 청사초롱을 들고 어두운 광주호호수생태원을 밝게 비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 다양성 증대를 통한 생태계보전에 기여하며 자연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2006년 3월 20일에 개원하였습

니다. 광주에 오면 꼭 들려야 할 코스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짧게 약40분 정도 노을길 코스를 걸어보고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오셔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다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상절리부터 담양의 가사문학권 탐방까지 재미있으셨나요?

네, 이제 오늘 지질탐사 시 작성한 필드노트를 발표하고 팀별로 느낀점을 이야기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지질의 암석부터 너덜의 다양한 생물과 느낀점까지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필드노트를 작성하고 발표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연의 소중함과 지질의 가치, 그리고 돌하나도 자연자원의 일부로 보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고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2일차]

가사문학권 탐방(소쇄원)

오늘은 소쇄원에서 듣는 가사문학 해설과 선비체험, 독수정 원림에 가서 어제 '어사바위'의 탁본을 팀별로 발표해보고 느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비옷으로 갈아입고 소쇄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담양에 위치한 국내 최고 원림이라고 불리는 소쇄원입니다. 소쇄원의 인물로는 창건자이자 주인인 양산보를 들 수 있는데 양산보는 소쇄원과 가까운 창평에서 태어나 자랐고 15살 때 서울로 올라가 조광조 아래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묘사화라는 사건을 계기로 양산보는 현실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와 소쇄원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소쇄원 입구에 서있으면 시작부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리입니다. 왜 소쇄원 앞에는 오리가 있을까요?(참여유도, 대담유도) 양산보가 어릴 적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발견하고 따라 와보니 지금 소쇄원의 자리를 발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너럭바위로 흐르는 계곡과 작은 폭포, 주변 풍광의 수려함에 눈을 떼지 못하였고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살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소쇄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쇄원 입구의 오리는 소쇄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구를 조금 지나와 이곳에서 보면 왜 소쇄원이 국내 최고의 원림이라 불리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을 아셔야 하는데 제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원림일까요? 대충 눈치 채셨죠??? 내 맞습니다. 오른쪽이 원림입니다.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은 정원은 나의 집(공간) 안에 인공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인위적으로 작은 자연을 만드는 것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정원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림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둔 뒤 빈 공간에 집을 채우는, 자연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의 건축을 원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쇄원은 자연 공간 안에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담장을 쪽~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을 따라 쪽~ 가다보면 오곡문이라는 출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담 아래 돌기둥을 만들고 계곡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오곡문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원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같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더라도 오곡문을 통하여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오곡문을 통해 흘러간 물이 바위에 다섯번 굽어져 흐른다고 하여

오곡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곡문 바로 옆에 담장을 보시면 애양단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애양단은 겨울에도 별이 잘 들어 따뜻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소재원관련 시 중 '애양단의 겨울 낮'이라는 시에서 한겨울에 계곡은 아직 얼었는데 이곳의 눈은 모두 녹았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별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겨울에도 눈이 가장 빨리 녹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오곡문 앞의 나무다리를 건너 광풍각과 제월당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제월당은 비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으로 주인의 공간입니다. 제월당은 주로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곳으로 이용하였고 주인의 공간답게 제월당의 마루에서 보면 소재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철, 송시열, 기대승 등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이곳 제월당에서 수양과 학문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월당 앞의 문을 통해 나가보면 광풍각이라는 손님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곳이 비객 뒤 맑은 해가 뜨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는 광풍각입니다. 광풍각 마루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자면(실제로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sound-scape 법)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폭포, 바위에 부딪치는 물소리, 시원한 바람과 같이 자연의 정취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광풍각은 사방이 마루로 뚫려 있고 가운데가 온돌방으로 만들어 저있어 별이 좋은 날이면 모든 문을 개방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겨울과 같이 추운 날이면 문을 닫고 온돌에 불을 지펴 따뜻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광풍각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궁금증유발) 광풍각 뒷 편에 온돌을 지피기 위한 아궁이가 있는데 광풍각에는 굴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굴뚝이 어디로 갔을까요?(호응유도) 이것은 광풍각 마루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굴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굴뚝은 천장위에 만들고 연기가 위로 빠져 나가게 하는데 어찌 광풍각의 굴뚝은 마루 아래로 나쳐 있을까요? 이 또한 자연을 활용하여 풍류를 즐기하고자하는 선비들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광풍각 앞에는 계곡 때문에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가 있어 굴뚝에서 나온 연기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연기가 옆으로 잔잔하게 퍼져 나가 마치 운해를 보는 듯 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풍류를 즐기하고자 하는 선비들의 지혜와 과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원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연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자연과 하나임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개인주의로 원림의 개념보다는 내가 자연을 만드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의식을 생각해 보면 옛 선비들이 원림을 짓고 생활하는 정신과도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해설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정원이 아닌 옛 선비들의 정신이 담긴 자연 원림안의 삶, 자연에 속한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해설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문학권 탐방(독수정 원림)

독수정은 무등산의 동북쪽 기슭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음동 마을에 있는 고려 말 공민왕 때의 충신 전신민이 세웠다는 아담한 정자입니다. 전신민의 묘소는 남면 금산에 있는데 신도비가 독수정 아래 세워져 있으며 지금의 정자는 그의 후손들이 증건한 것입니다. 전신민이 독수정을 짓고 지은 시를 한번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은 아득하고 나의 감회는 깊은데
어느 구름 속 깊은 곳에 이 늙은 몸을 부쳐둘까
머나 먼 천리길에 두 귀밑머리는 흰눈빛이 되고
백년 가까운 세월이 슬프고 처량하네
왕선과 꽃다운 풀은 봄의 한이 서렸고
달빛 아래 두견새는 꽃가지 사이로 우누나
바로 이 청산에 뼈를 묻히려고
군게 맹세하며 홀로 지킬 이 집을 얻었다네

이 시를 지은 전신민의 호는 서은, 본관은 천안이며, 고려 말에 북도첨무사 겸 병마원수를 거쳐 병부상서로서 다난한 국사를 말아 일해 왔으나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되는 것을 보고는 벼슬을 버리고 산음동에 내려와 독수정을 짓고 숨어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자를 독수정이라 한 것은 이백의 시 '백이 숙제가 누구인가 홀로 서산에서 절개를 지키며 굶주렸다네'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입니다. 독수정이 유독 북향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신민이 북향재배하기 위하여 북향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려 왕조가 무너진 뒤 왕족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왕씨 성을 전(全), 전(田), 옥(玉), 마(馬) 등으로 바꾸고 몸을 숨겼다고 전해지는데, 전신민도 그 가운데 한사람으로 고려 왕족이었다고 하여 이 근방에서는 전신민을 '왕판서'라 부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는 독수정과 그 일대의 원림을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6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독수정을 짓기까지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독수정을 자연과 벗삼아 학문과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도 알고 탐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어사바위'에 가서 탁본을 조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성한 탁본을 걸어놨는데요, 여기서 '어사바위'의 탁본을 조별로 발표해보고 어사바위를 보고 느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느낀점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가사문학권을 탐방하면서 돌하나에도 새겨진 의미와 우리나라의 정자문화를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이제 '무등산 지질따라 풍류나들이'의 일정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1박 2일 동안의 일정은 어떠셨나요? '무등산 지질따라 풍류나들이'의 일정을 하면서 자연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는 시간이 되셨나요? 국립공원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 이러한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미래세대까지 이러한 자연자원을 보고 수중함을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나요? 돌아가는 길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5】

탐방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실내·외 안전관리계획서

프로그램 지도자 대상 교육	시기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	담당자	이지선
	교육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숙지 ▪ 응급구조, 응급조치 방법 ▪ 사고 예방 설명 당부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교육	시기	프로그램 도입 시, 수시	담당자	권혁민(자연환경해설사) 등 4명
	교육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불편하거나 활동이 힘든 참가자는 지도자(진행자)에게 말한다. -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어질 경우 현장 사무소 내부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지정된 장소 이외로 벗어나지 않도록 약속한다. - 보호자는 피보호자(어린이, 청소년)가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한다. - 프로그램 간 내·외부에서 뛰지 않도록 한다. -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체력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자연놀이는 지양한다. - 발바닥에 다치는 물품이 있는지 유심히 본다. - 심장제세동기 및 구급품 위치를 알려준다. 		
대피로				
안전장비 현황	구분	내용	수량	위치

	소화기	3.3kg	33	체험동,생활관등
	휴대용 구급상자	연고, 소독약, 붕대등	4세트	탐방프로그램 운영자 상시 휴대
	기가폰	참가자 인솔 및 안내	4개	탐방프로그램 운영자 상시 휴대
	차량(카니발)	긴급상황 대비 후송	1대	생태탐방원 주차장
비상연락체계				
총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이지선 연락처: 062-263-1187			
응급시설	시설이름	연락처		
[소방서]	광주 북구소방서 두암119안전센터	062-606-4763		
[경찰서]	전남담양 석곡파출소	062-266-9912		
[근거리 약국]	고서약국	061-381-3338		
[근거리 병원]	광주두암보건지소	062-410-8969		
	고서삼성의원	061-383-7501		